

安東林 선생님과과의 만남과 너무 갑작스런 이별*

박찬호(대중가요 연구가)**

1990년 8월 달의 어느 무더운 날의 오후였다고 기억한다.

당시만 해도 3년이란 세월이 흘렀던 1987년 9월 말엽, 필자는 일본 도쿄(東京)에서 『韓國歌謠史(한국가요사) 1895-1945』를 간행하였다. 그때 그 책을 간행해주었던 도서출판사 ‘쇼오분샤(晶文社)’의 담당 편집자였던 마츠바라 아케미(松原明美) 여사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서울의 출판사 현암사(玄岩社)에서 박 선생님이 쓰신 『한국가요사』를 번역 출판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필자가 『한국가요사』를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1978년 1월 6일 오전 10시를 십여 분 정도 지나갔을 때의 일이다. 그 무렵 필자는 1966년 4월 1일~1977년 10월 30일까지 오래 몸담았던 한청(韓

* 이 글은 일본 나고야의 風媒社에서 발행하는 同人誌인 『즈이신(追伸)』 第9號에 수록한 원고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 나고야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2세인 박찬호는 2009년에 『한국가요사』 1·2(미지복스)를 출간하였다. 『한국가요사』1은 1987년 일본 쇼분샤에서 일본어 책으로 출간된 후, 1992년에 현암사에서 번역본이 출간된 바 있다.

靑: 제일한국청년동맹) 생활을 마무리했을 때였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던 순간마저 기억한다. 바로 새로 근무하게 된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韓民統)의 기관지였던 『민족시보사(民族時報社)』의 신년 시무식(始務式)에 참석하려고 나고야역(名古屋驛)에서 오전 9시경에 탔던 신칸센(新幹線) ‘히카리호(ひかり號)’가 시즈오카현 미시마시(靜岡縣三島市)를 통과하려 했던 순간이었다.

당시 필자는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품고 있었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金大中) 씨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필자는 일본 중부 지역의 구출운동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김대중 선생 구출대책 토오카이’ 지구 협의회(金大中先生救出対策東海地區協議會) 사무실이 기도 했던 박병채(朴柄采) 의장 댁을 매일 같이 드나들었다.

사건 발생 직전이었던 1973년 5월 달에 결혼한 필자는 아내 및 어머니 등 우리 식구들과 잘 사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반을 닦는 일이 필자의 급선무 과제였다.(필자 집에선 1993년 5월 달에 ‘야키니쿠(やきにく)’¹⁾ 집을 개업했지만 그것만 해도 그 시점에서 20년 후의 일이다).

1978년 1월 6일, 일본 도카이도(東海道) 연선(沿線) 일대는 구름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맑은 하늘 아래 온산이 흰눈으로 덮혔던 후지산(富士山)을 바라보면서 신칸센(新幹線) 차 안에서 장래를 생각하던 중 필자의 뇌리에, 갑자기 ‘한국 가요사(韓國歌謠史)를 정리해 보자!’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당시 필자가 한국가요사에서 ‘꼭 바로 잡아야겠다’고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두 가지 있었다.

1) ‘야키니쿠’는 일본식 소고기 구이 요리다(정리자 주).

1. 노래의 발표 연도의 문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중반에 음반이 발매된 <타향(他鄉)살이>나 <목포(木浦)의 눈물> 등 노래들이 종전에는 “1920년대 발표”라고 오기(誤記)되었다.

2. 월북 인사 및 改詞(개사)의 문제다.

남한에서 활약하던 작사자와 작곡자가 월북을 하면서 그들의 노래가 개사 과정을 거쳐 원형과 달라지고 말았다.

‘쇼오분샤’ 편집자인 마츠바라 여사는, 필자가 1977년 11월달부터 편집국 차장, 편집장 등 직책을 맡은 바 있었던 『민족시보』의 후배 기자였던 S기자와 K기자를 통해 알게 된 출판인이었다. 마츠바라 여사는 S기자의 대학 시절의 후배였으며, K기자는 당시 왕성한 연극활동을 벌였던 극단 ‘흑(黑: <ろ>) 텐트’의 활동을 지원하다가 마츠바라 여사도 알게 된 것이다.

필자는 그날로 『한국가요사 1895-1945』 한글판을 위한 번역 작업을 시작하였지만, 작업을 곧 중단했다. ‘현암사’에서 “책의 번역 작업을 청주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인 안동림(安東林) 선생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번역 작업이 필요없다.”는 연락을 전했기 때문이다. 후일 안동림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았더니, “도쿄의 서점에서 필자의 책을 우연히 발견했”고, “서울의 현암사에서 책 내용을 녹음한 후 출판사 사원들이 원고로 옮겼다.”는 설명을 해주셨다. 현암사의 한국어판 초판에,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몇 군데 있

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는데, 아마 그런 사정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암사 출판사는 ‘法典(법전)’으로 유명한 출판사다. 필자는 당초 현암사를 법률 전문 출판사로 오인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안동립 선생님이 완역(完譯)하신 『莊子(장자)』나 ‘클래식 음악의 교과서’로 평가되는 베스트셀러 『이 한장의 명반(名盤)』 같은 일반도서도 간행하는 출판사이다.

2009년 3월 18일, 속편 <1945-1980>이 완성되어 ‘미지북스’에서 『한국가요사 1,2』로 다시 간행하였다(개정판 및 속편 작업의 필요성을 현암사의 조근태(趙根台) 사장 및 쇼오분샤에도 건의한 바가 있었으나 “예정에 없다”고 거절당하여 일단은 단념했었다. 『한국가요사 1,2』가 나왔던 날 속편의 출판기념 모임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기도 했다.

물론 안동립 선생님도 함께해 주셨다. 그때 안동립 선생님께 『한국가요사』 책의 번역 작업을 둘러싼 당시 사정을 다시 물어 보았다. 『한국가요사』 책을 처음 보신 서점을 종로의 교보문고(教保文庫)라고 하셨다. 필자는 ‘전에 도쿄의 서점에서 발견하셨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라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아깝게도 그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했다.

1992년 3월의 어느 날, 안동립 선생님이 신나라레코드사의 이태규(李泰揆) 문예부장과 더불어 나고야의 필자 집으로 찾아오셨다. 이 부장이 함께 온 이유는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가요사 1895-1945』 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신나라레코드사에서 SP 음반을 복각해서 『한국가요사 1925~1945』란 CD 10매의 전집을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협력해 달라는 이야기였다 (그날 때마침 필자가 강사를 맡고 있었던 ‘장수(長水) 한글교실’을 견학하신 두 분은, 일본

사람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듯했다). SP 음반의 복각 전집을 만들려면 『한국가요사』 책 간행 후 알게 된 사이토오 초오지(齋藤晁司) 선생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필자는 곧 사이토오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승낙을 받았다.

사이토오 선생은 1936년 경에 우연히 JODK 방송국의 생방송(라디오) 중계로 고복수(高福壽)와 이난영(李蘭影)이 함께 노래하신 〈신(新)아리랑〉을 듣고 한국가요에 반해 버리고, 1994년 늦가을에 돌아가실 때까지 반세기 이상에 걸쳐서 한국 음반 수집 작업을 계속하신 분이다. 사이토오 선생 자신도 조선 가요에 대한 글을 일본 동인잡지(同人雜誌)에 연재하셨으며, 필자는 그 연재물의 첫 번째 원고를 보고 경악한 적이 있다. 그래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연말에, 사이토오 선생 댁을 찾아갔다. 사이토오 선생이 돌아가신 후 선생이 모으신 SP 음반을 모두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 드렸다(몇 년 전에 옛노래 사랑 모임 〈유정천리(有情千里)〉에 모두 기증했음).

사이토오 선생 댁을 찾아가는 날은 그해 5월 달의 어느 일요일로 정했다. 그날 도쿄에서는 아침부터 굵은비가 심하게 내렸다. 필자는 일찍 신칸센으로 도쿄에 나가, 집합처인 이케부크로(池袋)의 호텔에서 서울서 오는 신나라레코드사의 신(申) 회장과 박영주(朴榮珠) 사장, 그리고 이규태(李泰揆) 부장을 기다렸다. 아침부터 내렸던 비는 밤이 되어도 가시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카나메초오(要町) 역에서 내린 우리들은 바로 사이토오 선생 댁으로 향했다.

복사 작업은 사이토오 선생의 조카인 사이토오 신이치(齊藤愼一) 선생이 맡았다(신이치 선생의 아버지는 사이토오 초오지 선생의 친동생인데, 성을 「〈齋/齋〉字」 대신 일본에서만 쓰는 簡略體字(간략체자)인 「〈齊/齊〉字」를 사용하셨다. 쓰는데 너무 귀찮다는 이유인데, 구자체(舊字體)인 「齋/齊」를 썼던 시대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

하기도 한데...).

또 신이치 선생이 SP 음반을 복사하였을 때, “앗! 이 가수는 지금 왼쪽을 보고 노래했다.”고 말하여 우리들을 경악시켰다. ‘스테레오 음반으로도 좌우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 모노 SP 음반인데 어떻게?.....’

그날 작업은 필자가 SP 전집에 쓰는 곡을 미리 사이토오 선생이 정리하신 리스트에서 선곡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덕분에 곧 끝났다(결과적으로 사이토오 선생이 제공하신 곡목은 전집의 1/3-1/4 정도를 차지했다).

1990년 12월의 어느 날 현암사의 조근태 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20일에 안동립 선생님과 도쿄로 출장을 가게 되었으니, 케이오(京王) 프라자호텔에서 만납시다.”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가요사 1895-1945』의 한글판이 간행될 것이다.”고 해서 가슴이 뿌듯했다.

그날 조 사장은 케이오 호텔에서 나 이외의 몇몇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던 모양이었다. 그 중 하나가 일본 작가 오다 마코토(小田實) 선생 내외(그 무렵 오다 선생은 부인(夫人) 현(玄) 여사의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어머니(オモト) 태평기(太平記)」를 발표한 바 있고, 그 책의 한글판을 현암사에서 내기로 한 모양이었다. 또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낙연(李洛淵) 씨(전 국무총리)가 같은 호텔에 묵고 있어 조 사장 및 안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조근태 사장은 제일교포 문제에는 별로 이해가 깊지 않는 모양으로, 필자 등 한국계(韓國系) 2,3세가 독학으로 우리말을 배우는데 많이 고생해 왔다는 사실 등에 별로 흥미가 없는 인상이었다. SP 음반 노랫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까지에 가사를 보내 달라.”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해, 잡음 속에 문힌 말들 속에서 무슨 뜻인지 알

아보려고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저런 고생 끝에 1992년 2월 하순에 한국어판이 간행되었다. 이어 신나라레코드사의 SP 전집이 같은 해 8·15를 기해서 발매되어, 필자의 ‘꿈’이기도 했던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한국 가요사』 한국어판이 나온 다음 해인 1993년과 1994년 음력 설날, 필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안 선생님 댁을 찾아가서 새해 인사를 드렸다. 그때 안 선생님은 필자에게 『한국 가요사』 후편을 한국 잡지에 연재하라고 권유하셨다.

별안간 그런 말씀을 듣고 필자는 크게 당황했다. 실은 필자는 언어판이 나온 직후에 후편을 쓰려고 시도한 바가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쇄사슬에서 풀려 해방을 맞았다...”고 쓰기 시작하였지만, 그 뒤를 이어 쓸 수 없었다.

‘못썼던 이유’로는 자료 부족 등 갖가지 어려운 조건이 겹쳤지만,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 시대로부터 발단된 남북 분단 등 우리 현대사의 쓰디쓴 역사상(歷史相)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잡지 연재의 이야기는 일단 없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듬해인 1994년 음력 설날에 선생님께 세배하러 갔더니, 안 선생님은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2년에 걸쳐 같은 말씀을 하시니, 필자는 많이 당혹했다.

필자는 “해외에 있는 몸으로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글을 (일본말로)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석가님께 설교하는 격”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전에 시도해 본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하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새로 PC를 구입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었지만 PC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매일 ‘on-off’ 표시를 누르기만 했다.

또 필자에게는 『한국가요사』, 특히 ‘해방 후’ 편을 그리는데,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이 있었다. 필자가 한국에서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해방 전 노래는 일단 차치하고) 당시 노래가 어떻게 유행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었다.

하루는 서울의 친척집에서 TV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가요무대」를 방영했다. 그날 프로는 ‘반야월 특집’으로 귀에 익은 노래들이 많이 흘러나왔다. 그 중 하나 <외나무다리>라는 처음 듣는 노래가 있었다. 공연장에 모인 청중들도 가수를 따라 함께 노래했다. 또 이튿날 찾아간 신나라레코드사의 박영주 사장도 “그 프로그램을 보았다.”며, 더군다나 “<외나무다리>가 좋았다.”고 하셨다. 그때까지 필자는 한국가요사상 주요곡으로 모르는 노래가 없는 줄로만 알았더니, 아직 모르는 노래가 있는데다가 그 노래가 많이 애창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그 순간 필자의 자부심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필자는 그 무렵 알게 된 이준희(李俊熙) 선생에게 “<외나무 다리>가 해방 후 가요사에 꼭 들어가야 하는 노래”인지 물었더니, 그가 “꼭 들어가야죠.”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필자는 ‘후편’ 쓰기를 포기하려고 마음 먹고 나서 이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선생은 “해방 후 가요에 대해서는 각 장르별로 정리되고 있지만, 가요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은 아직 없으니, 꼭 완성해 주시기 바란다.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해 드리겠다.”는 답장이 왔다. 그 편지를 읽은 필자는 너무 고마워서, 다시 후편 쓰기 작업을 서둘렀다.

1995년도 8·15 행사 때 아이치현(愛知縣) 회장에서 우연히 아이치 가쿠센(愛知學泉) 대학의 불문학과 교수인 박수홍(朴秀鴻) 선생과 만났다. 박 교수는 “이번에 새로 『南北文化(남북문화)』란 동인지

를 발행하는데 협력해달라.”고 하셨다. 필자는 “때마침 새로 된 글이 있으니, 그 글을 보내드릴게요.”고 하였다. 후에 『한국가요사 I. II』로 간행될 ‘II(속편)’의 모두 부분을 제공하였다(물론 일어로 썼지만, 일인 학자들 간에서 평판이 높았다고 들었다). 이 글을 번역해서 서울서 유학생활을 보냈던 딸놈을 통해 안 선생님께 전달했더니, 곧 『월간 오디오』 잡지에 연재가 시작되었다.

당초 우리말을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불안감이 약간 있었지만, 정정된 부분이 뜻밖에 많지 않아서 일단은 안심했다. 순조롭게 시작된 연재였지만 곧 높은 장벽에 부딪혔다. 필자가 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실감나게 쓸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현실이 된 셈이다.

그리고 20세기 마지막 호로 된 1999년 12월호를 최후로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지면상에서 연재 중단 통고를 받았다. 곧 안 선생님께 연락을 했더니, “많은 독자들에게서 ‘재미없다.’는 소리가 편집부에 온 모양이다.”고 답하셨다.

발표할 자리를 잃은 원고를 어떻게 할까 숙고하였다. 그러다 2003년 10월 30일 저녁, 갑자기 안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나 안동림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신문 기자나 출판사 관계자들 몇몇이 와서 『한국가요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편 원고는 되었습니까?”

그 무렵 『한국가요사 속편』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가수들의 대표곡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고민 중이었다. 예를 든다면, 이미지 같은 가수의 경우 히트곡이 한없이 많으니까 어느 곡을 대표곡으로 들어도 괜찮겠지만, 세상에 잘 알려진 히트곡이 하나밖에

없는 가수들의 경우, 몇 곡을 소개하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안 선생님께 “되었다.”고도 “아직 안 되었다.”고도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안 선생님은 “10분 후에 ○○출판사의 ‘박’이란 편집자가 연락을 할 테니까 계약을 하세요.”라고 하셨다. 이때 이준희 선생 얼굴이 떠올라, 급히 이 선생에게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했더니 쾌락해 주었다.

안 선생님은 20세기 말에 강남에 성북으로 이사를 하셨다. 후일 安東林 선생님께, 필자가 “후편을 계속 쓰고 있는 줄을 어떻게 아셨는지” 물어보았더니, “박 선생 같은 분은 포기 안하실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셨다. 안 선생님의 통찰력(洞察力)이 정확히 맞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선생이 나고야에 들렀을 때 그간 추호(推稿)해 왔던 ‘속편 원고’를 이 선생에게 교정을 겸해서 넘겨주며, 서울에 있는 박 편집인에게 넘겨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서울로 갔을 때 이 선생과 함께 박 편집인을 만나자, 박 씨는 “이 원고를 내가 책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이번에 다른 출판사로 옮기며 할 수 없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

나중에 안 선생님께 그간 사정을 물어보더니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다. “○○출판사 박 선생에게 지불하는 인쇄액(印稅額)을 낮게 설정하려고 해서 내가 항의했다. 따라서 ○○출판에서 간행할 이야기는 그 시점에서 없어졌다.”라고 말씀해주셨다.

이제 다른 출판사를 찾아야 할 셈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선생의 서울대 후배인 이지열이란 분이 새로 ‘미지북스’란 출판사를 차렸다는 연락을 이준희 선생에게 하였다. 게다가 “책으로 만들 좋은 글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미지북스에 부탁하자고 이준희

선생과 내가 합의했다. 안 선생님은 “좀 더 유명하고 실적이 있는 출판사”를 희망하시는 모양이었으나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 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

안동림 선생님은 1932년 평양(平壤) 근교인 평남(平南) 평은군(平隱郡) 숙천(肅川) 태생이다. 어려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간다(神田)에서 자라셨다. 때문에 8·15 해방을 맞았을 때엔 “우리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말하시며 웃으셨다.

해방 직후에 귀국한 필자의 일가친척들은 우리말을 배우는데 많이 고생한 바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안 선생남도 비슷한 고생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김일성(金日成) 대학교’로 진학하셨다니까 어학 습득 능력이 남달리 높으셨는지도 모른다.

안 선생님의 아버지는 목재상(木材商)을 경영해서 크게 성공하신 모양이지만, 김일성(金日成) 독재 정권하에서 ‘자본가’로 지목되어 총살당하셨다고 한다. 안 선생님은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곧 월남하며 평양에서 탈출하였다. 월남 후 안 선생님은 서울로 향하여 미디어 가(街) 주변에서 살았다.

안 선생님은 高麗(고려)大 영문과를 다니셨다가 후에 淸州(청주) 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되었다. 안 선생님은 또 전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20세기 막바지 5년간을 서울에 유학시켰던 필자의 딸놈이 찾아갔을 때마다 게임 이야기만 하셨다는데, 범백(凡百)은 이해 못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안 선생님은 1957년 소설 「신태양」으로 등단한 후 70년대 초까지 소설을 썼으며, 1960년대에는 신문기자로도 활동하셨다고 한다.

어느 때 이북의 ‘대남 선전방송’이 안 선생님의 소설 일부분을 낭독한 바람에, 안 선생님이 한국중앙정보부에 불러 취조를 받는 사건

이 발생했다 (인용된 소설은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부패상을 고발한 내용이었다고 함). 안 선생님은 “상대방이 마음대로 인용했을 뿐,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두 번 다시 소설을 안 쓰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셨다.

안동림 선생님은 2014년 7월 1일 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급성폐렴으로 서거하셨다.

“번거롭지 않게, 소박하나 따뜻하게”란 후사를 당부한 안 선생님의 유지에 따라 직계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식이 치러졌으며, 분당 메리얼파크의 장식이 없고 화엄경(華嚴經)의 글귀인 <무거무래(無去無來)>라 새겨진 작은 검정 비석만 놓은 묘에 안장되셨다.

향년 82세로 돌아가신 안 선생님은 호(號)를 ‘우당(愚堂)’이라 하셨다. 대표작으로는 베스트셀러 『이 한장의 명반(클래식)』(현암사, 1988년)을 비롯하여, 『이 한장의 명반(오페라)』, 『이 한장의 명반(양장본 HARD COVER)』 등이 있으며, 최신작으로 『내 마음의 아리아』(1994년) 등이 있다.

1973년에는 한국 최초로 『莊子(장자)』를 완역(完譯)해서 “영문학자가 중국 고전을 번역했다.”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책은 오늘날에도 대학에서 장자 사상 연구의 기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팔순 들어서 저미는 심한 가슴 저리게 삶의 애환을 느꼈으며, 더욱 더 삶의 지병처럼 내 가슴에 자리를 잡았다.”는 글이 인용되고 있으며, 이 글은 “아리아는 향수의 노래가 되었다.”고 마무리 짓고 있다.

2011년 10월 5일 필자는 서울 강남(江南)의 ‘한국문화의 집(KOUS)’에서 <인생 60년, 노래와 더불어 60년>이란 주제로 음반 라이브 공연을 하였다. 또 이를 앞두고 그해 10월 1일자 『朝鮮日報(조선일보)』 별

쇄판에 김윤덕(金潤德) 기자의 글로 된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렸다.

필자는 안 선생님과 알게 되었을 무렵 메일을 할 줄을 몰라 연락은 전화로 해왔기 때문에 안 선생님의 메일 주소를 모른다. 또 당시 안 선생님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릴 길이 없었다(게다가 김 기자는 필자가 한민통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집요하게 질문해서, 필자가 “나를 만난 친척들이 당국에 불려서, 고문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자, “한민통의 대북 자세에 대한 불만” 때문이란 자기 견해를 결론적으로 썼기 때문에 남에게 「읽으시라」고 권하지도 못했다.)

안 선생님은 당초 인터뷰 기사를 못 읽으셨으며, 또 KOUS에도 못나오셨다. 후일 안 선생님이 지인을 통해서 뒤늦게 『조선일보』 기사를 읽으셨다며, 그 친구가 “KOUS에도 갔다 오셨지요?”고 물었는데도, 안 선생님은 “연락이 없어서 못 갔다.”고 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뉘우쳤지만, 아무래도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안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클래식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안 교수는 음악 전문가나 비평가라 불리면 몸서리를 친다. 단지 애호가라고 주장한다.”는 글이 소개되고 있다. 안 선생님은 〈木浦(목포)의 눈물〉 같은 대중가요도 좋아하시며 〈木浦의 눈물〉 가사에 대하여,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아아, 얼마나 잘된 노랫말입니까?”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2018년 7월 12일 도쿄(東京) 닛포리(日暮里)의 서니 홀(sunny holl)에서 『한국가요사 I.Ⅱ(일어개정판 및 속편)』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어 같은 달 11일 후인 22일에는 나고야 YWCA 회관에서 같은 모임이 열렸다. 요즘 “그 자리에 안동림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1992년 안 선생님이 졸저(拙著) 『한국가요사 1895-1945』를 번역 간행했을 때, “클래식 하는 학자가 번역했으니 틀린 데가 여러 군데 있다.”는 비판을 받으셨지만, 진옥섭(陳玉燮: 진한국문화재 이상장)은 “클래식 음악으로 저명한 안 선생이 번역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한국어의 어법에 맞춰 장유정(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이 일부 수정 보완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